



##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전이와 창의적 성격 및 진로 활동의 역할\*

김윤경<sup>1</sup>

###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두 시점 간 잠재유형 소속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며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잠재유형 소속 및 두 시점 간 전이확률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 코호트의 5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5차년도 또는 7차년도 진로적응성 지표에 응답한 2,325명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은 두 시점에 공통으로 확인된 잠재유형에 대해 부분 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 조건에서 추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후기 청소년기에는 중간형, 호기심 약세형, 자신감 약세형, 고수준형이 도출되었고 성인 초기에는 호기심 약세형, 고수준형, 중간형, 저수준형이 나타났다. 잠재전이분석 결과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은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저수준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후기 청소년기 고수준형은 성인 초기 고수준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간형과 저수준형 순으로 나타났다. 후기 청소년기 호기심 약세형과 자신감 약세형은 모두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

고교 시점 예측변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간형을 기준집단으로 한 잠재유형 소속 분석에서 창의적 성격은 고수준형과 자신감 약세형 소속과 정적으로 관련되었고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은 중간형을 제외한 세 유형 소속과 모두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창의탐색형 활동은 고수준형 소속과 정적으로, 자신감 약세형 소속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전이확률에 대한 예측효과를 분석한 결과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에서는 동아리활동과 창의탐색형 활동이 많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보다 중간형 또는 고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에서는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이 많을수록 성인 초기 중간형보다 저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시점의 진로활동경험이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형성 및 변화와 관련되며 그 관련 양상이 초기 잠재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진로적응성, 잠재전이분석, 창의적 성격, 진로활동경험, 성인 초기 전환기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B5A16006553)

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acrosstheuniverse222@gmail.com](mailto:acrosstheuniverse222@gmail.com)

## I. 서론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이행은 개인의 진로 경로가 본격적으로 분화되는 중요한 전환기이다(Arnett, 2000). 이 시기 개인은 학교라는 비교적 구조화된 환경을 벗어나 대학 진학, 취업 준비, 직업훈련 등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며 자신의 진로 가능성을 보다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조정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전후하여 대학 진학, 취업, 재수,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 및 노동 시장 이행 경로로 접어들게 되며(안선영, 장원섭, 2009)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예상되거나 예기치 못한 진로과업에 대처하는 진로적응성이 중요해진다(Savickas & Porfeli, 2012). 따라서 성인 초기 전환기의 진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진로 결정 여부를 넘어 시간에 따른 진로 적응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진로 발달 연구는 진로 성숙도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uper et al., 1957). 진로 성숙도는 개인이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진로 발달 과업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의미하며(Crites, 2013) 진로 계획성, 진로 결정성, 진로 준비성 등을 통해 측정되어 왔다(장계영, 김봉환, 2011). 이러한 진로 성숙도 개념은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전제로 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진로 경로를 상정한다는 점에서(Savickas, 2005) 빠른 기술 변화와 불확실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진로를 재구성해야 하는 현대 사회의 진로 발달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진로 발달은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 달성 여부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변화와 전환에 대응하는 개인의 적응 자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 진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 성숙도 중심의 관점을 넘어 상황적 변화와 전환에 대처하는 진로적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avickas, 2005; Savickas & Porfeli, 2012).

진로적응성은 개인이 직면한 진로과업과 예상되는 진로 전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심리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Savickas, 2005; Savickas & Porfeli, 2012).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적응성은 시간에 따라 발달하며 이후 진로 발달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Hirschi, 2009).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진로적응성의 평균 수준, 변화 궤적, 또는 진로 관련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변수중심 접근에 기반해 왔다(Hirschi, 2009; Negru-Subtirica et al., 2015; Rogers & Creed, 2011). 이러한 접근은 전체 집단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개인 내

하위요인의 조합 차이나 시간에 따른 유형 변화의 이질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Laursen & Hoff, 2006).예컨대 동일한 평균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이는 학생이라도 진로 관심,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의 조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의 차이는 이후 전환기에서 진로 적응성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양상과도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적응성 발달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중심 접근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잠재유형을 식별하고 시간에 따른 유형 간 전이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Laursen & Hoff, 2006; Morin et al., 2011). 최근 일부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의 이질적 유형이 확인되었으나(Hirschi & Valero, 2015)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전이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Bouckennooghe et al., 2022). 특히 기존 연구는 대학생 또는 특정 교육 및 훈련 집단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경향이 있어(신윤정, 2013;지 Hirschi & Valero, 2015; Parmentier et al., 2022) 고교 졸업 이후 다양한 경로로 분화되는 청년의 진로 적응성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인 초기 전환기의 진로적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 경로로 이행한 청년을 함께 고려하여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전이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 전이는 전환기 이후의 환경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적 특성, 학습경험, 맥락적 자원이 진로 관련 선택과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제안한다(Lent et al., 1994) 청소년기의 진로계획과 진로탐색 역시 이러한 개인적이거나 맥락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Rogers et al., 2008; Rogers & Creed,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교 시점에 형성된 개인적, 경험적 자산으로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창의적 성격은 개방성, 독립성, 비순응성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성향과 관련된다(Feist, 1998). 진로 전환기에는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것보다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자신의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Savickas, 2013) 창의적 성격은 진로적응성의 초기 수준이나 잠재유형 차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창의적 성격이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진로적응성 변화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성격적 특성과 진로 관련 자기효능감, 진로 계획 및 진로 탐색 행동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으나(Rogers et al., 2008; Rogers & Creed, 2011) 창의적 성격이 진로적응성의 종단적 변화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진로 활동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로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ogers & Creed, 2011). 특히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 경험·실천 기반 활동은

사회적 참여와 실제적 과업 수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계획과 탐색을 촉진할 수 있다(Mahoney et al., 2005; Larson et al., 2006; Rogers & Creed, 2011). 다만 이러한 활동이 진로적응성 변화와 연결되는 방식은 학생의 초기 진로적응성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코호트의 5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떻게 구분되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 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 및 성인 초기로의 잠재유형 전이 양상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 초기 전환기 진로적응성의 이질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고교 시점의 개인적, 경험적 요인이 이후 진로적응성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후기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 시점의 진로적응성은 어떠한 잠재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은 어떠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은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4.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은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별 성인 초기 잠재유형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예측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성인 초기 전환기 진로 발달과 진로적응성

성인 진입기는 정체성 탐색, 불안정성,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로 설명된다(Arnett, 2000). 진로 발달 측면에서 이 시기는 학생 역할 중심 진로 탐색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 및 노동 시장 경로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구체화하고 진로 전환 과업에 대처해야 하는 시기이다(Shanahan, 2000; Schoon & Silbereisen, 2009; Savickas & Porfeli, 2012). 이에 따라 성인

초기 전환기의 진로 발달은 특정 진로 결정 여부로 이해되기보다 변화하는 진로 과업에 대한 개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적응성은 성인 초기 전환기의 진로 발달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은 연령에 따른 발달 과업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성숙도와 구분되는데 진로성숙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진로 경로를 전제로 발달 단계에 적합한 준비 수준을 강조한다면, 진로적응성은 변화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진로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전환에 대처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둔다(Savickas, 2005). 진로 경로가 다양하게 분화되는 성인 초기 전환기 진로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와 함께 진로적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avickas(2005)는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 진로적응성을 진로 전환과 직업적 과업에 대처하는 심리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Savickas와 Porfeli(2012)는 진로적응성을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네 차원으로 구체화하였다. 관심은 미래 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려는 태도, 통제는 진로 선택과 결정에서 주도성을 갖는 태도, 호기심은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을 탐색하려는 성향, 자신감은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진로적응성은 진로 준비, 계획, 탐색, 자신감과 관련된 발달적 특성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삶의 만족과 같은 긍정적 발달 지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Hirschi, 2009).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적응성은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단일한 총점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동일한 평균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이는 개인이라도 미래 진로에 대한 관심, 대안 탐색 성향, 진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의 상대적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하위 차원의 조합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진로 적응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유지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 청소년기 진로적응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진로정체성 발달과도 상호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는 점에서(Negru-Subtirica et al., 2015)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하위 차원의 조합과 변화 양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진로적응성의 유형과 변화

최근 진로 발달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 접근을 활용하여 진로적응성의 이질적 유형을 식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Hirschi와 동료들(2015)은 스위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의

네 가지 유형(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 불균형 적응형)을 확인하였다. Negru-Subtirica와 동료들(2015)은 루마니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이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함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김나리와 동료들(2024)은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의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진로적응 중하집단, '진로적응 상집단', '진로적응 보통집단', '진로적응 하집단', '진로적응 중상집단' 등 다섯 가지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한편 진로적응성은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안정성을 보이면서도 개인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Negru-Subtirica와 동료들(2015)은 청소년기의 진로적응성이 시간에 따라 유지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며 진로적응성 발달과 상호 관련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을 단일 시점의 수준만으로 파악하기보다 시간에 따른 유형 변화와 전이 양상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단일 시점의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거나 진로적응성의 평균 변화 궤적을 추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개인이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는지에 대한 종단적 검토는 부족하다.

### 3. 창의적 성격 및 진로활동 경험과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전이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 변화는 전환기 혹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환경적 특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고교 시점에 형성된 개인적·경험적 자산이 이후 진로적응성 변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Hirschi,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교 시점 자산으로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 가. 창의적 성격과 진로적응성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산물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Runco & Jaeger, 2012; Sternberg & Lubart, 1999). 창의적 성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대안적 사고를 추구하며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성향으로 개방성, 자율성, 비순응성 등의 특성을 포함한다(Feist, 1998). 창의성과 진로 발달의 관련성은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의 창의성이 진로적응성과 관련되고 이를 매개로 미래지향

적 진로 태도와 연결될 수 있음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Fusco et al., 2019).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는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Savickas, 2005, 2013).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진로 역할과 발달 단계의 전환 상황에서 개인이 낮설고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이해된다(Chen et al., 2020).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창의적 성향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재구성하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국내 HRD 환경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도 창의적 성격 특성에 포함되는 개방성과 주도성은 경력적응성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적응 준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주홍주 외, 2023). 이는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고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변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려는 창의적 성향이 진로적응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외 실증 연구에서 창의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직접 검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다만 창의적 성격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을 포함하는 기업가적 성향이 진로적응성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한다. 예컨대 İspir 등(2019)은 기업가적 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적응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기업가적 성향이 진로적응성의 유의한 예측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 나. 진로활동 경험과 진로적응성

진로활동 경험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 가치, 능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진로 선택에 필요한 경험적 자원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Blustein, 1997; Stumpf et al., 1983). 이러한 활동 경험은 진로 관심,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과 같은 진로적응성 자원과 개념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Savickas & Porfeli,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측정 문항을 고려하여 고교 시점의 활동 경험을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은 진로체험, 직업박람회, 진로상담, 현장견학 등 실제 진로세계와 접촉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이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진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며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 탐색이 자신 및 직업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은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 이해를 촉진하는 진로발달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Blustein, 1997; Stumpf et al., 1983).

동아리활동은 학생이 공통된 관심과 목표를 중심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특정 역할을 수행

하며 지속적인 참여 경험을 축적하는 장이다. 조직화된 청소년 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활동이 주도성, 정체성 탐색과 성찰, 정서적 학습, 팀워크 및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Hansen et al., 2003; Larson et al., 2006). 이러한 동아리활동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과 대화, 정보 교환, 협력적 문제해결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의 관심, 호기심, 자신감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황순희 외, 2019).

동아리활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직접 다룬 실증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황순희 등(2019)은 동아리 참가 대학생 161명과 동아리 이외 비교과 활동 참가자 65명을 대상으로 메타인지와 진로적응성을 비교하였다. 동아리 참가자는 동아리 이외 활동 참가자보다 진로적응성 총점과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특히 관심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황순희 외, 2019).

창의·탐색형 활동은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기계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관심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경험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이 학업 중심 활동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실증 연구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학생이 관심 분야의 도전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하는 진로탐색수업의 효과성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수업 전후로 진로적응성 총점과 하위요인 중 관심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김지근 외, 2023). 직업능력교육 참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 참여경험이 진로적응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활동경험을 진로적응 과정에 관여하는 경험적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한은정 외, 2018).

### III.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5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5차년도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점으로 대학 진학, 취업, 진로 탐색 등 향후 진로 경로에 대한 의사결정이 점차 구체화되는 시기이다. 7차년도는 고교 졸업 이후 성인 초기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대학 진학뿐 아니라 취업, 비재학, 비취업 등 다양한 이행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두 시점은 고교 재학



중 형성된 개인적, 경험적 자산이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전환기의 진로적응성 변화를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 7차년도 분석대상을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시점에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잠재전이분석에는 5차년도 또는 7차년도 진로적응성 지표에 응답한 총 2,325명을 포함하였으며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통해 처리하였다. 고교 시점 예측변인이 포함된 분석에서는 예측변수 결측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2,252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 2. 주요 변수

### 가.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5차년도와 7차년도에 공통으로 조사된 진로적응성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측정 문항을 반영하여 진로적응성의 네 차원 중 관심(3문항), 호기심(5문항), 자신감(5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vickas와 Porfeli(2012)가 제안한 네 가지 하위 차원이 아니라 패널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측정된 관심, 호기심, 자신감 차원을 중심으로 진로적응성 지표를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진로적응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이후 각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잠재전이분석의 측정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일관성 계수는 5차년도 기준 진로관심  $\alpha = .81$ , 진로호기심  $\alpha = .85$ , 진로자신감  $\alpha = .86$ 이었으며, 7차년도 기준 진로관심  $\alpha = .67$ , 진로호기심  $\alpha = .84$ , 진로자신감  $\alpha = .83$ 이었다.

### 나. 창의적 성격

창의적 성격은 5차년도 창의적 성격 체크리스트 문항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해당 문항은 창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비창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성격에 해당하는 형용사 선택 수에서 비창의적 성격에 해당하는 형용사 선택 수를 차감하여 창의적 성격 점수를 산출하였다. 창의적 성격 문항은 일반적인 Likert형 다문항 척도가 아니라 형용사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간 내적일관성 계수 산출보다 형용사 선택 수에 기반한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산출된 점수는 다른 연속형 예측변수와 단위 차이를 조정하고 회귀 계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z점수로 표준화하였다.

#### 다. 진로활동경험

진로 관련 활동경험은 고교 시점에 학생이 경험한 진로 및 탐색 관련 활동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활동경험을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 1〉 진로활동경험 변수의 구성 및 산출 방식

| 변수명              | 구성 내용                                                                        | 원자료 처리                      | 산출 방식                     |
|------------------|------------------------------------------------------------------------------|-----------------------------|---------------------------|
| 경험·실천 기반<br>진로활동 | 진로활동, 진로 관련 동아리활동, 현장<br>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 실무체험,<br>진로캠프, 대학 연계 진로체험,<br>직업박람회 |                             |                           |
| 동아리활동            | 교내 공식 동아리,<br>교외 공식 동아리                                                      | 참여 = 1,<br>미참여 =<br>0으로 재코딩 | 참여한 활동<br>수를 합산한 뒤<br>표준화 |
| 창의·탐색형<br>활동     | 문화예술 활동, 과학정보 활동, 모험개척<br>활동, 자기계발 활동                                        |                             |                           |

### 3. 분석 방법

#### 가. 잠재프로파일 및 잠재전이모형 설정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구조와 전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5차년도와 7차년도에 공통으로 측정된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세 하위영역 점수를 연속형 지표로 투입하였다. 먼저 각 시점별로 2유형부터 4유형까지의 잠재프로파일모형을 추정하여 잠재유형 수를 검토하였으며 이후 두 시점의 잠재유형을 동시에 포함한 잠재전이모형을 추정하였다. 잠재유형 수와 최종 모형은 정보준거, 분류의 명확성, 잠재유형의 해석 가능성, 전이확률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AIC, BIC, saBIC, Entropy, 유형별 비율 등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국소최대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무작위 초기값을 사용하여 반복 추정하였다.

각 시점의 잠재프로파일모형을 검토한 뒤 두 시점의 잠재유형을 동시에 포함한 잠재전이모형을 추정하였다. LTA에서 전이확률은 이후 시점의 잠재계층변수를 이전 시점의 잠재계층변수에

회귀시키는 다항로지스틱 구조를 통해 산출되며 이는 특정 시점의 잠재유형에 속한 개인이 이후 시점의 각 잠재유형으로 이동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Nylund-Gibson et al., 2023).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잠재유형을 출발유형, 7차년도 잠재유형을 도착유형으로 설정하고 7차년도 잠재유형을 5차년도 잠재유형에 회귀시킴으로써 잠재유형 간 전이확률을 산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간 종단적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 평균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검토하였으며 완전 측정불변성 모형과 일부 지표의 제약을 완화한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최종 모형은 모형 적합도, 추정치의 안정성, 잠재유형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고수준 유형 간 진로 관심과 진로호기심 평균은 동일하게 제약하였고 진로자신감 평균은 자유롭게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수준형의 진로자신감 평균은 후기 청소년기 3.677에서 성인 초기 3.807로 자유롭게 추정되었다. 최종 잠재전이모형에서 산출된 조건부 평균을 바탕으로 각 잠재유형의 특성을 해석하고 명명하였다.

#### 나. 고교 시점 예측변수의 초기 잠재유형 예측효과

고교 시점 변인이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plus의 R3STEP 절차를 활용하였다. 보조변수를 혼합모형에 직접 투입하는 1단계 접근은 공변수의 영향으로 잠재유형의 측정모수가 변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반해 3단계 접근은 공변수를 포함하기 전에 잠재유형 수와 측정모형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잠재유형 분류오차를 반영한 상태에서 공변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보조변수 투입에 따른 유형 정의의 변화를 줄일 수 있다(Vermunt, 2010; Nylund-Gibso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잠재프로파일 모형에서 확인된 4개 잠재유형의 소속 가능성을 결과변수로 하여 Mplus의 R3STEP 을 적용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집단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중간형으로 설정하였다. 예측변수로는 창의적 성격,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을 투입하였으며 이러한 4개의 예측변수는 하나의 모형에 동시에 투입하여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 변인이 잠재유형(프로파일) 소속에 미치는 예측효과를 검토하였다.

#### 다. 고교 시점 예측변수의 잠재유형 전이 예측효과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이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전이를 예측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수동 3단계 접근을 적용한 잠재전이 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수동 3단계 접근은 잠재유형 분류오차를 고정한 상태에서 예측변수의 효과를 추

정함으로써 잠재유형 분류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비 분석에서 4가지 예측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은 일부 모수의 표준오차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산출되는 등 추정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분석에서는 각 예측변인을 별도의 모형에 투입하였다.

#### 4. 분석 도구

잠재프로파일분석, 잠재전이분석, R3STEP 분석 및 수동 3단계 잠재전이 예측모형은 Mplus 8.11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연속형 지표를 사용한 잠재프로파일 및 잠재전이모형은 최대우도 추정법을 기반으로 추정하였으며 표준오차와 검정통계량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MLR 추정량을 사용하였다. 자료 전처리와 기술통계 산출, 변수 구성, 결과 정리는 R 4.5.2 및 RStudio 2026.01.1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R에서는 주로 tidyverse 패키지를 활용하여 자료 전처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의 정리와 표 작성에는 broom 및 관련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진로적응성 하위요인의 평균은 5차년도 2.67~2.71, 7차년도 2.87~2.90으로, 성인 초기 시점의 평균이 고교 시점보다 다소 높았다. 동일 시점 내 하위요인 간 상관은 5차년도 .70~.74, 7차년도 .67~.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5차년도와 7차년도 하위요인 간 상관은 .18~.28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동일 시점 내 상관보다 낮았다. 이는 이행기 동안 진로적응성이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 가능성을 함께 지님을 시사한다. 한편 창의적 성격, 창의·탐색형 활동은 진로적응성 하위요인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M  | 2.71 | 2.67 | 2.67 | 2.90 | 2.87 | 2.90 | -    | -    | -   | -  |
| SD | 0.66 | 0.61 | 0.65 | 0.58 | 0.58 | 0.57 | -    | -    | -   | -  |
| 1  | -    |      |      |      |      |      |      |      |     |    |
| 2  | .72  | -    |      |      |      |      |      |      |     |    |
| 3  | .70  | .74  | -    |      |      |      |      |      |     |    |
| 4  | .28  | .21  | .22  | -    |      |      |      |      |     |    |
| 5  | .22  | .22  | .18  | .68  | -    |      |      |      |     |    |
| 6  | .20  | .19  | .20  | .67  | .79  | -    |      |      |     |    |
| 7  | .12  | .16  | .09  | .08  | .06  | .05  | -    |      |     |    |
| 8  | -.20 | -.16 | -.15 | -.07 | -.07 | -.08 | -.07 | -    |     |    |
| 9  | .23  | .17  | .17  | .16  | .15  | .12  | .07  | -.42 | -   |    |
| 10 | .20  | .17  | .18  | .14  | .12  | .11  | .11  | -.37 | .42 | -  |

주. N = 2,252. 1 = 5차 진로관심, 2 = 5차 진로호기심, 3 = 5차 진로자신감, 4 = 7차 진로관심, 5 = 7차 진로호기심, 6 = 7차 진로자신감, 7 = 창의적 성격, 8 =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9 = 동아리활동, 10 = 창의탐색형 활동. 5차년도 = 고2, 7차년도 = 고졸 후 1년. 굵게 표시한 상관계수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7-10번 변수는 범주형임.

## 2.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수 결정 및 유형 특성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점별로 2유형부터 6유형까지의 잠재프로파일모형을 비교하였다. 시점별 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3〉과 같다.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모두 유형 수가 증가함에 따라 AIC, BIC, saBIC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BLRT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후기 청소년기에서는 4유형 모형까지 LMR-LRT가 유의하였으나 5유형과 6유형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들 모형에서는 최소 유형 비율이 각각 1.96%와 1.23%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특히 6유형 모형에서는 최적 로그우도값이 반복되지 않아 국소최대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확인되었다. 성인 초기에는 2유형 모형을 제외한 3유형 이후 모형의 LMR-LRT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2유형과 3유형 모형은 각각 약 98%와 94%의 사례가 하나의 대규모 유형에 집중되어 진로적응성의 이질성을 충분

히 포착하지 못하였다. 반면 4유형 모형에서는 저수준형, 중간형, 고수준형, 호기심 약세형으로 구분되는 해석 가능한 유형 구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5유형과 6유형 모형에서는 정보준거가 추가로 감소하였으나 최소 유형 비율이 각각 1.47%와 1.31%로 나타나 매우 작은 유형이 추가로 분리되었다. 후기 청소년기 4유형 모형의 Entropy는 .746, 성인 초기 4유형 모형의 Entropy는 .831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준거의 변화, LMR-LRT와 BLRT 결과, 분류의 명확성, 잠재유형의 크기, 모형의 간명성 및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시점 모두 4유형 모형을 최종 잠재프로파일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잠재전이모형에서 산출된 평균과 잠재유형 비율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후기 청소년기에는 네 개의 잠재유형이 확인되었다. 잠재유형 명칭은 각 유형에서 세 하위요인의 추정 평균이 보이는 상대적 패턴을 반영하여 부여하였다. 이에 진로관심과 진로자신감에 비해 진로호기심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은 '호기심 약세형'으로, 진로관심과 진로호기심에 비해 진로자신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은 '자신감 약세형'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중간형으로 전체의 72.43%에 해당하였다. 이 유형은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이 모두 중간 수준에 위치하였다. 다음으로 고수준형은 12.59%로 나타났으며 세 하위요인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호기심 약세형은 7.84%로 진로관심과 진로자신감에 비해 진로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약세형은 7.14%로 진로관심과 진로호기심에 비해 진로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성인 초기에도 네 개의 잠재유형이 확인되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중간형으로 전체의 56.14%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저수준형은 27.81%로 나타나 성인 초기 시점에서 진로적응성의 세 하위요인이 모두 낮은 집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수준형은 13.78%로,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호기심 약세형은 2.27%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진로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3〉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수 결정

| 시점         | 지표 수 | AIC      | BIC      | saBIC    | LMR-LRT $p$ | BLRT $p$ | Entropy | 최소 유형 비율(%) |
|------------|------|----------|----------|----------|-------------|----------|---------|-------------|
| 후기<br>청소년기 | 2    | 9251.079 | 9325.433 | 9284.100 | < .001      | < .001   | .893    | 5.26        |
|            | 3    | 9150.921 | 9248.153 | 9194.141 | < .001      | < .001   | .836    | 7.28        |
|            | 4    | 9050.125 | 9170.236 | 9103.515 | < .001      | < .001   | .746    | 7.32        |

| 시점    | 지표 수 | AIC      | BIC      | saBIC    | LMR-LRT $p$ | BLRT $p$ | Entropy | 최소 유형 비율(%) |
|-------|------|----------|----------|----------|-------------|----------|---------|-------------|
|       | 5    | 9010.929 | 9153.918 | 9074.489 | .165        | < .001   | .823    | 1.96        |
|       | 6    | 8973.275 | 9139.143 | 9047.005 | .058        | 경고       | .855    | 1.23        |
| 성인 초기 | 2    | 7237.240 | 7310.518 | 7269.216 | .032        | < .001   | .967    | 1.58        |
|       | 3    | 7152.637 | 7248.461 | 7194.451 | .369        | < .001   | .920    | 2.84        |
|       | 4    | 7091.037 | 7209.409 | 7142.690 | .164        | < .001   | .831    | 2.95        |
|       | 5    | 7006.858 | 7147.777 | 7068.349 | .353        | < .001   | .837    | 1.47        |
|       | 6    | 6969.993 | 7133.458 | 7041.323 | .132        | < .001   | .830    | 1.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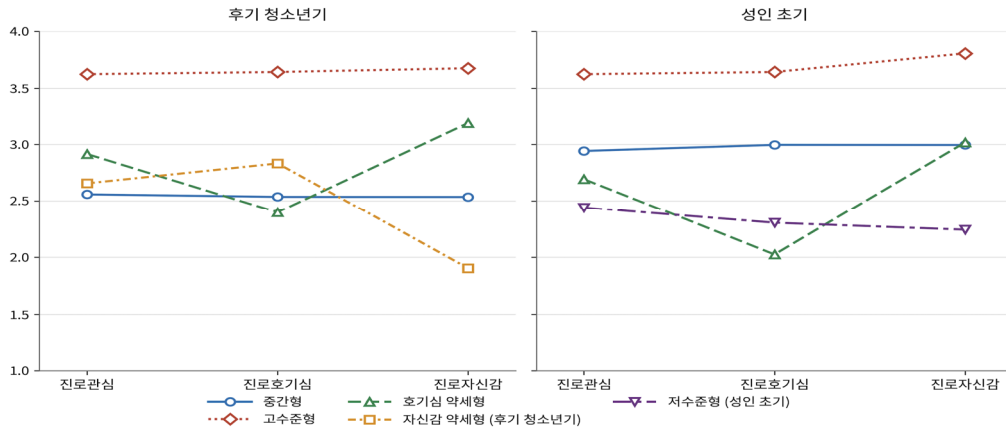
주.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 sample-size adjusted BIC, BLRT =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LMR =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LRT의  $p$ 값은 해당 모형이 한 개 적은 프로파일 모형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는지를 나타냄.

〈표 4〉 진로적응성 잠재유형별 지표 평균 및 비율

| 시점      | 잠재유형                 | 비율(%) | 진로관심  | 진로호기심 | 진로자신감 |
|---------|----------------------|-------|-------|-------|-------|
| 후기 청소년기 | 중간형                  | 72.43 | 2.557 | 2.535 | 2.534 |
|         | 호기심 약세형              | 7.84  | 2.914 | 2.397 | 3.188 |
|         | 자신감 약세형 <sup>a</sup> | 7.14  | 2.655 | 2.831 | 1.903 |
|         | 고수준형                 | 12.59 | 3.625 | 3.644 | 3.677 |
| 성인 초기   | 호기심 약세형              | 2.27  | 2.691 | 2.024 | 3.016 |
|         | 고수준형                 | 13.78 | 3.625 | 3.644 | 3.807 |
|         | 중간형                  | 56.14 | 2.941 | 2.995 | 2.994 |
|         | 저수준형 <sup>b</sup>    | 27.81 | 2.438 | 2.303 | 2.242 |

주. N = 2,325. 추정치는 고수준형 부분 동일성 모형(최종 모형)에 근거함. 고수준형의 진로관심과 진로 호기심 평균은 두 시점 간 동일하게 제약된 값임. a 후기 청소년기에만 확인된 유형. b 성인 초기에만 확인된 유형

〈그림 1〉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프로파일



### 3. 잠재전이모형 측정동일성 검토

두 시점의 잠재유형 간 전이확률을 해석하기에 앞서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비교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표의 분산과 지표 간 공분산은 잠재유형 간 동일하게 제약하되 시점 간에는 자유롭게 추정하였으며 동일성 검토는 잠재유형별 지표 평균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동일성 제약은 두 시점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중간형, 고수준형, 호기심 약세형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자신감 약세형은 후기 청소년기에만, 저수준형은 성인 초기에만 확인되어 대응 가능한 유형이 존재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제약 모형은 4,000개의 무작위 시작값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최적 로그우도가 재현되었다. 제약 모형은 두 시점 잠재유형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제약 모형의 추정치를 시작값으로 고정하고 프로파일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정하였다. 비제약 모형은 모든 잠재유형의 조건부 평균을 시점별로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이며 완전 동일성 모형은 공통 세 유형의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평균을 모두 두 시점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부분 동일성 모형은 각각 중간형, 고수준형, 호기심 약세형의 세 지표 평균을 시점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며 추가로 고수준형의 진로관심과 진로호기심 평균만 동일하게 제약하고 진로자신감 평균은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을 검토하였다. 모형 간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5〉와 같다.

완전 동일성 모형은 정보준거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고 성인 초기의 잠재유형 구조도 유지되지 않았다. 저수준형(27.81%)이 소실되고 고수준형의 비율이 13.78%에서 29.16%로 증가하였으며 일부 전이경로에 해당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관련 모수가 추정되지 못하는 등 추정상의



문제도 나타났다. 중간형 부분 동일성 모형은 무작위 시작값을 사용한 추정에서 최적 로그우도가 재현되지 않았고 시작값에 따라 서로 다른 프로파일 구조로 수렴하였다. 비제약 모형의 추정치를 시작값으로 고정한 조건에서는 정보준거가 악화되고 Entropy가 .699로 낮아지는 등 중간형의 시점 간 평균 동일성이 안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고수준형 및 호기심 약세형 부분 동일성 모형은 비제약 모형과 유사한 적합도를 보였다. 다만 호기심 약세형 부분 동일성 모형은 BIC와 saBIC에서 다소 낮은 값을 보였음에도 추정 과정에서 모형이 안정적으로 수렴하지 않았고 일부 전이 경로의 계수가 정상적으로 추정되지 않았다. 성인 초기 해당 유형에 속한 비율 역시 2.27%(53명)로 매우 낮아 동일성 제약을 적용하더라도 해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고수준형의 진로자신감 평균만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비제약 모형에서 고수준형의 시점 간 평균 차이는 진로관심 .168, 진로호기심 .190, 진로자신감 .279로 진로자신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모형은 추정 과정에서 경도가 발생하지 않았고 프로파일 형태와 유형별 비율이 비제약 모형과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며 안정적으로 추정된 제약 모형 가운데 AIC, BIC, saBIC가 모두 가장 낮았다. 비제약 모형은 AIC와 saBIC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나 BIC에서는 부분 동일성 모형들보다 높았으며 모형 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saBIC 기준 2.0 이내). 이에 추정의 안정성, 모형의 간명성, 잠재유형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수준형의 진로관심과 진로호기심 평균을 동일하게 제약한 부분 동일성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이 모형은 비제약 모형에 비해 유의한 적합도 손실을 보였으므로 고수준형의 종단적 동일성은 제한적으로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5〉 종단적 측정동일성 모형간 비교

| 모형                 | 자유모수 수 | LL        | AIC       | BIC       | saBIC     | Entropy | $\Delta\chi^2(\Delta df)$ |
|--------------------|--------|-----------|-----------|-----------|-----------|---------|---------------------------|
| 비제약 모형             | 51     | -7947.461 | 15996.923 | 16290.248 | 16128.211 | .760    | —                         |
| 완전 동일성 모형          | 42     | -8031.483 | 16146.965 | 16388.527 | 16255.085 | .719    | 168.04(9)***a             |
| 중간형 부분 동일성 모형      | 48     | -8011.598 | 16119.195 | 16395.266 | 16242.761 | .699    | 128.27(3)***a             |
| 고수준형 부분 동일성 모형     | 48     | -7961.008 | 16018.016 | 16294.087 | 16141.581 | .775    | 27.06(3)***               |
| 호기심 약세형 부분 동일성 모형  | 48     | -7954.734 | 16005.467 | 16281.538 | 16129.033 | .754    | 6.51(3)                   |
| 고수준형 자신감 자유 모형(최종) | 49     | -7953.052 | 16004.104 | 16285.926 | 16130.243 | .770    | 9.08(2)*                  |

주. N = 2,325.  $\Delta\chi^2$ 는 비제약 모형과의 비교이며 MLR 척도 보정 차이검정 결과임. 완전 동일성 모형은

공통 3유형(중간형·호기심 약세형·고수준형)의 세 지표 평균을 모두 제약한 모형임. 완전 동일성 모형에서 다항로짓 3개가 특이성 회피를 위해 고정되었으나 자유모수 수는 Mplus 산출값을 따름. a 척도 보정계수가 음수로 산출되어 보정 차이검정을 적용할 수 없어 단순 우도비 값을 제시함. \*  $p < .05$ , \*\*\*  $p < .001$

#### 4.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진로적응성 잠재전이확률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떠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시점의 잠재유형을 동시에 포함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잠재전이확률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최종 잠재전이모형은 완전 측정불변성 모형이 아니라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에 근거하므로 두 시점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제시된 잠재유형을 완전히 동일한 심리적 상태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일 명칭의 유형으로의 전이는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수준과 조합이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동일 상태가 완전히 지속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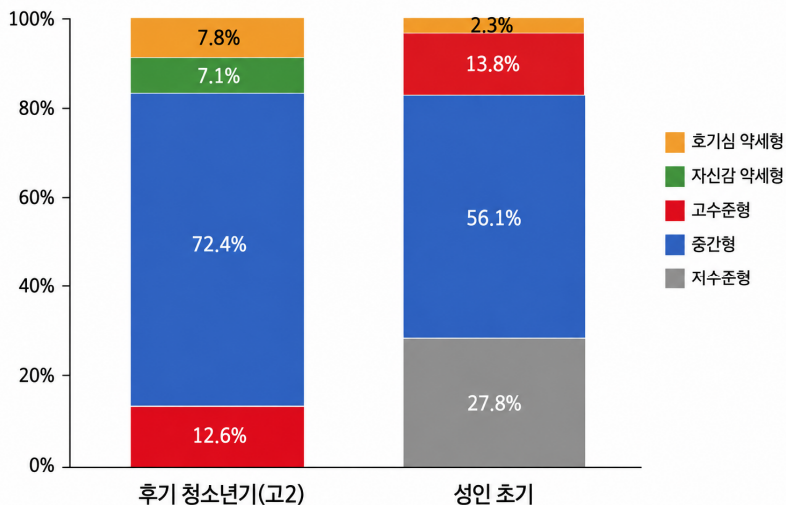
전이확률을 살펴보면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은 성인 초기에도 동일하게 중간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594). 그러나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도 .316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였던 학생 중 약 3분의 1은 성인 초기 시점에서 저수준형으로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071, 호기심 약세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020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후기 청소년기 호기심 약세형은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전이될 확률이 .4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261,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234였으며 호기심 약세형으로 분류될 확률은 .105였다. 즉 호기심 약세형은 동일 유형으로 안정적으로 재분류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산되어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은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전이될 확률이 .804로 가장 높았다.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142, 고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054였으며 호기심 약세형으로의 전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에 관심과 호기심에 비해 자신감이 낮은 집단이 성인 초기에는 대체로 중간형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후기 청소년기 고수준형은 성인 초기 고수준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49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간형으로 전이될 확률도 .337로 나타났으며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168이었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에 높은 진로적응성을 보인 집단도 성인 초기 시점에서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성인 초기 시점에서 중간형 또는 저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호기심 약세형으로의 전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진로적응성 잠재전이확률

| 후기 청소년기 (n)      | 성인 초기<br>호기심 약세형 | 성인 초기<br>고수준형 | 성인 초기<br>중간형 | 성인 초기<br>저수준형 |
|------------------|------------------|---------------|--------------|---------------|
| 중간형<br>(1,684)   | .020 (34)        | .071 (120)    | .594 (1,000) | .316 (532)    |
| 호기심 약세형<br>(182) | .105 (19)        | .261 (48)     | .401 (73)    | .234 (43)     |
| 자신감 약세형<br>(166) | .000 (0)         | .054 (9)      | .804 (133)   | .142 (24)     |
| 고수준형<br>(293)    | .000 (0)         | .495 (145)    | .337 (99)    | .168 (49)     |

주. 행은 후기 청소년기 잠재유형, 열은 성인 초기 잠재유형임. 각 값은 모형에서 추정된 조건부 전이확률이며 괄호 안은 해당 경로의 추정 사례 수임.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은 전체의 2.27%(53명)로 규모가 작아 이 유형과 관련된 전이경로는 추정이 불안정함. 자신감 약세형과 고수준형에서 호기심 약세형으로 전이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호기심 약세형으로의 전이와 관련된 다항로지트 2개는 특이성 회피를 위해 고정되어 표준오차가 산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 열의 값은 모두 유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반올림으로 인해 행의 합이 1 및 행별 사례 수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2〉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구성비 비교



#### 4. 고교 시점 변인의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예측효과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을 예측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R3STEP 절차를 적용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유형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중간형으로 설정하였다. 예측변수로는 창의적 성격,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을 투입하였으며 네 예측변수는 동일 모형에 동시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고수준형과 중간형을 비교한 결과 네 예측변수 모두 고수준형 소속 가능성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창의적 성격이 높을수록 고수준형에 속할 오즈가 증가하였으며 ( $B = .331$ ,  $SE = .090$ ,  $p < .001$ ,  $OR = 1.392$ , 95% CI [1.168, 1.660]),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도 고수준형 소속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였다,  $B = .498$ ,  $SE = .108$ ,  $p < .001$ ,  $OR = 1.645$ , 95% CI [1.330, 2.034]. 동아리활동 역시 고수준형 소속 가능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B = .333$ ,  $SE = .107$ ,  $p = .002$ ,  $OR = 1.395$ , 95% CI [1.131, 1.720]), 창의·탐색형 활동도 유의한 정적 예측효과를 보였다,  $B = .259$ ,  $SE = .106$ ,  $p = .015$ ,  $OR = 1.295$ , 95% CI [1.052, 1.595].

다음으로 호기심 약세형과 중간형을 비교한 결과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이 유의한 정적 예측효과를 보였다.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이 높을수록 호기심 약세형에 속할 오즈가 증가하였으며( $B = .423$ ,  $SE = .114$ ,  $p < .001$ ,  $OR = 1.527$ , 95% CI [1.222, 1.908]) 동아리활동 역시 호기심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높였다,  $B = .306$ ,  $SE = .114$ ,  $p = .007$ ,  $OR = 1.358$ , 95% CI [1.087, 1.697]. 반면 창의적 성격과 창의·탐색형 활동은 호기심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약세형과 중간형을 비교한 결과 창의적 성격,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은 유의한 정적 예측효과를 보인 반면 창의·탐색형 활동은 유의한 부적 예측효과를 보였다. 창의적 성격이 높을수록 자신감 약세형에 속할 오즈가 증가하였고 ( $B = .309$ ,  $SE = .100$ ,  $p = .002$ ,  $OR = 1.361$ , 95% CI [1.119, 1.657])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역시 자신감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높였다,  $B = .309$ ,  $SE = .113$ ,  $p = .006$ ,  $OR = 1.362$ , 95% CI [1.091, 1.700]. 동아리활동도 정적 예측효과를 보였으며  $B = .327$ ,  $SE = .114$ ,  $p = .004$ ,  $OR = 1.387$ , 95% CI [1.110, 1.733]. 반면 창의·탐색형 활동은 자신감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B = -.329$ ,  $SE = .128$ ,  $p = .010$ ,  $OR = .720$ , 95% CI [.560, .925].

〈표 7〉 고교 시점 변인의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예측효과

| 비교<br>잠재유형 | 예측변수             | <i>B</i> | SE   | <i>p</i> | OR    | 95% CI            |
|------------|------------------|----------|------|----------|-------|-------------------|
| 고수준형       | 창의적 성격           | .331     | .090 | < .001   | 1.392 | [1.168,<br>1.660] |
|            | 경험·실천 기반<br>진로활동 | .498     | .108 | < .001   | 1.645 | [1.330,<br>2.034] |
|            | 동아리활동            | .333     | .107 | .002     | 1.395 | [1.131,<br>1.720] |
|            | 창의·탐색형 활동        | .259     | .106 | .015     | 1.295 | [1.052,<br>1.595] |
| 호기심<br>약세형 | 창의적 성격           | -.058    | .121 | .633     | .944  | [.744,<br>1.197]  |
|            | 경험·실천 기반<br>진로활동 | .423     | .114 | < .001   | 1.527 | [1.222,<br>1.908] |
|            | 동아리활동            | .306     | .114 | .007     | 1.358 | [1.087,<br>1.697] |
|            | 창의·탐색형 활동        | -.083    | .122 | .496     | .921  | [.725,<br>1.168]  |
| 자신감<br>약세형 | 창의적 성격           | .309     | .100 | .002     | 1.361 | [1.119,<br>1.657] |
|            | 경험·실천 기반<br>진로활동 | .309     | .113 | .006     | 1.362 | [1.091,<br>1.700] |
|            | 동아리활동            | .327     | .114 | .004     | 1.387 | [1.110,<br>1.733] |
|            | 창의·탐색형 활동        | -.329    | .128 | .010     | .720  | [.560,<br>.925]   |

주.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기준유형은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

## 5. 고교 시점 변인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전이 예측효과

고교 시점 변인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간 전이 예측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모형에서는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으로의 전이효과가 예비 분석에서 불안정하게 추정되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전이효과는 해석에서 제외하고 성인 초기 저수준형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중간형 및 고수준형으로의 전이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각 예측변인은 별도의 모형에 투입되었으므로 도출된 결과는 다른 예측변인을 통제한 효과가 아니라 각 예측변인의

개별적 전이 예측효과로 해석하였다. 창의적 성격은 어떠한 후기 청소년기 출발유형에서도 성인 초기 저수준형 대비 중간형 또는 고수준형으로의 전이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즉, 창의적 성격은 초기 잠재유형 소속 가능성에는 일부 관련되었으나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전이양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않았다.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은 대부분의 출발유형에서 유의한 전이 예측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 출발자에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자신감 약세형 출발자의 경우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하는 것에 비해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낮았다,  $B = -1.436$ ,  $SE = .649$ ,  $p = .027$ ,  $OR = .238$ , 95% CI [.067, .849]. 이는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수준이 높은 자신감 약세형 학생이 성인 초기 중간형보다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상대적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신감 약세형은 후기 청소년기 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이며 성인 초기 저수준으로의 전이도 약 14%로 희소하므로 이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활동은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에서 성인 초기 저수준형 대비 중간형 및 고수준형으로의 전이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의 경우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하기보다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높았으며 ( $B = .239$ ,  $SE = .115$ ,  $p = .037$ ,  $OR = 1.270$ , 95% CI [1.015, 1.590]), 저수준형으로 전이하기보다 고수준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높았다,  $B = .408$ ,  $SE = .161$ ,  $p = .011$ ,  $OR = 1.504$ , 95% CI [1.097, 2.061]. 반면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에서는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 대비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낮았다,  $B = -1.210$ ,  $SE = .593$ ,  $p = .041$ ,  $OR = .298$ , 95% CI [.093, .953]. 이는 이 집단에서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중간형으로 이동하기보다 저수준형으로 이동할 상대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신감 약세형은 후기 청소년기 전체의 7.14%에 해당하는 소규모 집단이었으며 이 집단에서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142, 중간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804로 추정되었다. 특히 저수준형 전이 사례는 대략 24명 수준으로 추정되어 빈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해당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창의·탐색형 활동 역시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 출발자에서 유의한 전이 예측효과를 보였다. 중간형 출발자의 경우 창의·탐색형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하기보다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높았고  $B = .265$ ,  $SE = .106$ ,  $p = .012$ ,  $OR = 1.304$ , 95% CI [1.060, 1.603], 저수준형 대비 고수준형으로 전이할 오즈도 높았다,  $B = .370$ ,  $SE = .158$ ,  $p = .019$ ,  $OR = 1.447$ , 95% CI [1.062, 1.973]. 다른 초기 유형에서는 창의·탐색형 활동의 유의한 전이 예측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고교 시점 변인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전이 예측효과

| 예측<br>변수            | 후기<br>청소년기<br>출발유형 | 전이 비교                     | <i>B</i> | SE   | <i>p</i> | OR    | 95% CI            |
|---------------------|--------------------|---------------------------|----------|------|----------|-------|-------------------|
| 경험·실천<br>기반<br>진로활동 | 자신감<br>약세형         | 성인 초기<br>중간형 vs.<br>저수준형  | -1.436   | .649 | .027     | .238  | [.067,<br>.849]   |
|                     | 중간형                | 성인 초기<br>중간형 vs.<br>저수준형  | .239     | .115 | .037     | 1.270 | [1.015,<br>1.590] |
| 동아리활동               | 중간형                | 성인 초기<br>고수준형 vs.<br>저수준형 | .408     | .161 | .011     | 1.504 | [1.097,<br>2.061] |
|                     | 자신감<br>약세형         | 성인 초기<br>중간형 vs.<br>저수준형  | -1.210   | .593 | .041     | .298  | [.093,<br>.953]   |
| 창의·<br>탐색형<br>활동    | 중간형                | 성인 초기<br>중간형 vs.<br>저수준형  | .265     | .106 | .012     | 1.304 | [1.060,<br>1.603] |
|                     | 중간형                | 성인 초기<br>고수준형 vs.<br>저수준형 | .370     | .158 | .019     | 1.447 | [1.062,<br>1.973] |

## V. 결론 및 논의

### 1. 주요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떻게 구분되고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진로 적응성 잠재유형 및 이후 전이 양상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세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교 시점 예측변인의 영향을 3단계 접근에 기반하여 검토하였다.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잠재유형을 비교하기 위한 종단적 측정구조를 검토하였으며 최종 잠재전이모형에서는 일부 측정모수에 동일성 제약을 적용한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을 채택

하였다. 따라서 두 시점에서 같은 명칭으로 제시된 잠재유형이라도 완전히 동일한 집단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최종 잠재전이모형의 분류 명확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잠재유형 분류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을 통해 분류오차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은 각각 네 개의 잠재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후기 청소년기에는 중간형, 호기심 약세형, 자신감 약세형, 고수준형이 확인되었고 성인 초기에는 호기심 약세형, 고수준형, 중간형, 저수준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이 단순한 평균 수준 차이로만 설명되기보다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응답 패턴에 따라 이질적으로 구분되는 잠재적 하위집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는 자신감 또는 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유형이 확인된 반면 성인 초기에는 저수준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의 수준뿐 아니라 하위요인 간 구성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인 초기에 저수준형이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진로적응성을 발달적으로 축적되는 자원이자 동시에 환경적 요구에 따라 변동 가능한 상태로 본 관점(Savickas & Porfeli, 2012)과 일치한다.

둘째,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이 양상은 초기 잠재유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은 성인 초기에도 중간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나 일부는 저수준형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이 정체성 탐색과 역할 실험이 집중되는 시기라는 발달심리학적 관점(Arnett, 2000)에서 이해할 수 있다. Arnett은 이 시기를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하며 교육 및 직업 경로의 불안정성과 정체성 재구성이 두드러지는 시기로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의 전이는 이러한 발달적 불안정성이 진로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수준형 역시 성인 초기에도 고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중간형 또는 저수준형으로 전이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호기심 약세형은 성인 초기 동일 명칭의 유형으로 분류되기보다 여러 유형으로 분산되어 전이되었으며 자신감 약세형은 대체로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분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이 고교 시점의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초기 전환 과정에서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이 양상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를 잠재전이분석으로 검토한 김미림 외(2019)의 연구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소극적·고수준 집단의 전이는 1학년 시기의 자아개념이, 중수준 집단의 전이는 4학년 시기의 취업지원프로그램 경험이 각각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유형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자원과 경험적 요인이 전이 양상과 다르



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이 대체로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분류되면서도 약 3분의 1이 저수준형으로 전이되었고 고수준형과 호기심 약세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산 전이되는 등 초기 유형에 따라 전이 경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성인 초기 저수준형의 출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기 청소년기에는 별도의 저수준형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인 초기에는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이 모두 낮은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비재학, 비취업 등 다양한 이행 환경이 일부 청년에게 낮은 진로적응성 패턴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여부의 결정, 진로 구체화, 새로운 교육 혹은 직업 환경에 대한 적응, 미래 직업세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발달과업이 부각된다. 따라서 고교 시점에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진로적응성 패턴을 보였던 학생이라도 전환기 이후 새로운 진로 과업에 직면하면서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 연구에서 고교 시점 상태 뿐 아니라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전환기 맥락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은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 가능성을 차별적으로 예측하였다. 중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수준형은 창의적 성격,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 모두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창의적 성향과 다양한 진로 관련 경험이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이 모두 높은 유형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호기심 약세형은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고 자신감 약세형은 창의적 성격,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창의·탐색형 활동은 자신감 약세형 소속 가능성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는 진로활동경험의 하위 유형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특정 하위요인의 강점이나 약점 또는 불균형과 다르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적응력 유형을 분석한 추지윤과 이은지(2023)의 연구 결과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을 진로적응 부진집단(42.2%), 우수집단(13.3%), 보통집단(44.5%)의 3개 잠재프로파일로 분류하고 개인 변인(학업효능감, 진로계획), 가정 변인(부모 양육태도), 학교 변인(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 우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의 인지적·동기적 자원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라는 다층적 맥락 변인이 진로적응 관련 잠재유형 소속에 함께 관여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이라는 개인 변인과 진로활동경험이라는 학교 맥락 변인이 후기 청소년기 고수준형·호기심 약세형·자신감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차별적으로 예측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해당 연구가 진로적응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낮게 평가한다고 보고한 점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인 초기 저수준형의 존재와 이를 향한 잠재유형의 전이가 단순히 진로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학업 및 전반적 심리적 적응과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신호임을 시사하며 낮은 진로적응성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야 할 실천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넷째, 고교 시점 예측변인의 전이 예측효과는 초기 잠재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창의적 성격은 후기 청소년기 잠재유형 소속 가능성과는 일부 관련되었으나 성인 초기 잠재유형으로의 전이 양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이는 창의적 성격이 고교 시점의 진로적응성 수준이나 유형과 관련될 수는 있지만 이후 전환기 동안의 변화 방향까지 안정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동아리활동과 창의·탐색형 활동은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 출발자에게서 상대적으로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중간형 학생의 경우 동아리활동과 창의·탐색형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이동하기보다 중간형이나 고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 참가 대학생이 비참가 대학생보다 진로적응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황순희 외, 2019)의 결과와 유사하며 동아리와 같은 비교과 활동 경험이 진로적응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해당 연구는 동아리 참가 여부에 따른 횡단적 집단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이 종단적 전이 양상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아리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섯째,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에서는 일부 진로활동경험이 예상과 다른 방향의 전이 가능성과 관련되었다.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에 비해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호기심은 높지만 진로자신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더라도 저수준형보다 중간형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신감 약세형의 집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부 전이 경로의 사례 수가 제한적이었으므로 해당 결과는 탐색적으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진로적응성의 변화를 개인 중심 접근으로 분석함으로써 진로적응성 발달의 이질적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진로적응성을 주로 연속변수로 다루거나 평균 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조합에 따라 이질적 잠재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형이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인중심접근은 성인 초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여 진로적응성 프로파일 간 이동 양상을 확인한 선행 연구(Bouckennooghe, Kanar, & Klehe, 2022)의 흐름과 방법론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다만 해당 연구는 저·중·고 세 개의 프로파일이 진로적응성 잠재집단의 수준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형태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 약세형, 자신감 약세형과 같이 하위요인 간 상대적 불균형을 보이는 형태적으로 이질적인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잠재집단별 수준 및 형태의 이질성 모두 확인된 결과(Wang, Yan, Cheng, Ma, & Wang, 2024)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진로적응성의 형태적 이질성이 성인보다 청소년기·전환기 표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기를 진로적응성 발달의 중요한 변화 시점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기 고수준형의 일부가 성인 초기 중간형 또는 저수준형으로 이동하였고 중간형에서도 저수준형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교 졸업이 진로발달의 자연스러운 진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과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의 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직업 전환기 동안 대학 졸업생의 진로적응성 발달궤적을 개인중심접근으로 추적한 선행 연구(Fu, Cai, Yang, Pan, Xu, & Shi, 2023)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429명의 중국 대학 졸업생을 6개월 간격으로 1년간 추적하여 진로적응성이 급성장·성장·정체의 세 가지 이질적 발달궤적으로 분화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전환이 모든 개인에게 균일한 발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상이한 변화 양상을 낳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 전환기의 이질적 전이 양상 역시 생애주기상 주요 전환점이 진로적응성의 균일한 향상이 아니라 개인차를 동반한 재구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의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진로적응성 발달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경험적 자원의 차별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창의적 성격은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 가능성과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나 이후 전이 양상과는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반면 일부 진로활동경험은 특정 초기 유형에서 성인 초기 전이 양상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대학생 진로적응성 관련 영향 변인을 메타분석한 박은규와 이서정

(2018)의 연구에서 성격강점과 같은 심리적 특성 변인군보다 자기주도학습, 우연대처기술과 같은 행동적 특성 변인군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향적 특성이 초기 진로적응성 수준과 관련될 수 있는 반면, 전환기 이후의 변화는 실제 활동 경험이나 환경적 기회와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 학생의 약 3분의 1이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교 시점의 진로교육은 평균적인 학생 집단에 대해서도 지속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간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이는 학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뚜렷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낮은 진로적응성 패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는 진로적응성이 매우 낮은 학생뿐 아니라 중간 수준의 학생에게도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간형 학생들은 동아리활동과 창의·탐색형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비교과 활동이나 탐색 중심 활동이 중간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이는 학생에게 중요한 경험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활동 참여 자체의 인과효과라기보다 활동 경험과 전이 양상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활동의 단순 제공을 넘어 학생이 활동 경험을 자신의 흥미, 강점, 진로 목표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컨대 활동 후 성찰, 교사의 피드백,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포레와의 경험 공유 등이 함께 제공될 때 활동 경험이 진로적응성 발달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신감 약세형 학생의 전이 양상이 다른 유형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진로호기심과 진로자신감을 균형 있게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호기심이 높은 학생은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진로자신감이 낮을 경우 탐색 경험이 구체적인 진로계획이나 실행 가능성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단순히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활동 후 피드백, 진로효능감 강화, 선택지 정리, 의사결정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입의 효과성은 진로적응 모형에 기반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조혜련, 이제경, 2025)에서도 뒷받침된다. 해당 연구는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한 구조화된 개입에 참여한 집단이 비교·통제집단보다 진로적응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향상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는 하위요인 간 불균형을 보이는 특정 프로파일(예: 호기심은 높으나 자신감이 낮은 집단)에

대한 효과를 별도로 분석한 것은 아니므로 구조화된 개입이 진로적응성 전반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반적 근거로만 참고할 수 있다.

### 3. 제한점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두 시점 자료를 활용하여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전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두 시점 분석은 잠재유형 간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진로적응성이 어떤 속도로 변화하는지, 특정 변화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이후 시점에서 회복이나 추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 잠재유형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단적 측정구조를 검토하고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을 적용하였으나 잠재유형의 수와 명명은 지표 구성, 모형 제약, 정보준거, 해석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세 시점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장기적 전이 양상을 분석하고 대안적 모형 설정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전이 예측효과 분석은 모형의 추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각 예측변인을 별도의 모형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한 전이 예측효과는 다른 예측변인을 통제한 조건부 효과가 아니라 각 예측변인과 잠재유형 전이 간의 개별적 관련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측변인 간 상관이 존재할 경우 관찰된 효과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잠재유형과 전이 경로의 사례 수가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과 자신감 약세형 출발자의 일부 전이 결과는 추정 안정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확정적 결론이라기보다 탐색적 발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큰 표본이나 독립 표본을 활용하여 결과를 반복 검증하고 여러 예측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을 통해 예측변인의 상대적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예측변인은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에 한정되었으며 이러한 진로활동경험 변인 역시 활동의 양적 수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의 변화에는 고교 졸업 이후의 진학 및 취업 상태, 전공이나 직무 만족도, 교육 및 직업 환경에 대한 적응, 진로상담 경험,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후속 맥락 변인이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활동에 참여했다라도 참여의 자발성, 활동의 질,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활동 후 성찰의 정도에 따라 진로적응성과의 관련성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부 활동 경험이 자신감 약세형 출발자에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점은 활동의 양뿐 아니라 질과 의미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교 졸업 이후의 맥락 변인과 진로활동경험의 질적 특성을 함께 측정하여 진로적응성 전이의 영향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에서 제공한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진로적응성 지표의 결측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으로 처리하였으나 통제변수와 예측변수의 결측은 별도로 보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측요인 분석의 결과는 해당 변수들이 모두 관측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수의 예측변인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중검정 보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결과의 유의성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례 수가 작은 잠재유형이나 이와 관련된 전이경로에서 확인된 결과는 탐색적 수준의 근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가중치와 예측변수 결측 처리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의 대표성과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진로적응성 전이 양상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나 각 잠재유형의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진로 경험을 하며 왜 특정 전이 경로를 보이는지에 대한 심층적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호기심은 높지만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이 활동 경험 이후 어떤 방식으로 진로불확실성이나 진로자신감을 경험하는지, 동아리활동이나 창의·탐색형 활동이 어떤 조건에서 긍정적 전이 가능성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양적 분석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면담, 개방형 응답, 사례연구 등을 결합하여 잠재유형별 학생들의 진로 경험과 의미화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 논문 투고일: 2026. 6. 1.    ※ 논문 수정일: 2026. 7. 29.    ※ 게재 확정일: 2026. 7. 30.

## 〈참고문헌〉

- 김나리, 전주성(2024). 전문대생의 진로적응성 유형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예측변인의 영향 검증. **한국교육논총**, 45(1), 317-343.
- 김미림, 유예림, 황은희, 김선용(2019).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대학생 진로성숙도의 발달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1), 173-197.
- 김지근, 김준희, 노준희, 이경운(2023). 학생설계 도전과제에 기반한 진로탐색수업의 효과 분석: 진로적응성, 진로구성행동, 진로정체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6(2), 59-85.
- 박은규, 이서정(2018). 대학생 진로적응성 관련 영향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8(3), 35-56.
- 신운정(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안선영, 장원섭(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II: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계영, 김봉환(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 조혜련, 이제경(2025).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사범대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10(1), 1-35.
- 주홍주, 오서경, 유명현, 송지훈(2023). 국내 HRD환경에서의 경력적응성 메타분석.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5(2), 1-36.
- 추지윤, 이은지(2023). 청소년 진로적응력 특징 및 영향요인 탐색.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43(3), 139-154.
- 한은정, 서희정, 윤명희(2018). 직업능력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참여경험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30(1), 281-294.
- 황순희, 주나형, 조한나(2019). '동아리' 참가 대학생의 메타인지와 진로적응성 탐색. **교양교육연구**, 13(1), 293-320.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60-274.
- Bouckenooghe, D., Kanar, A., & Klehe, U.-C. (2022). A latent transition analysis examining the nature of and movement between career adaptability profi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36, Article 103728. <https://doi.org/10.1016/j.jvb.2022.103728>
- Chen, H., Fang, T., Liu, F., Pang, L., Wen, Y., Chen, S., & Gu, X. (2020). Career adaptability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with scientific knowledge mapping in Web of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6), 5986.
- Crites, J. O. (2013). Career development in adolescence: Theory, measurement, and longitudinal findings. In *Adolescence and Work* (pp. 141-156). Routledge.
- Feist, G. J. (1998). A meta-analysis of personality in scientific and artistic creat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4), 290-309.
- Fu, C., Cai, Y., Yang, Q., Pan, G., Xu, D., & Shi, W. (2023).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1(3), 476-492.
- Fusco, L., Parola, A., & Sica, L. S. (2019). From creativity to future: The role of career adaptability. In *Proceedings of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Higher Education Learning Methodologies and Technologies Online*(Vol. 2524, pp. 1-9). CEUR-WS.
- Hansen, D. M., Larson, R. W., & Dworkin, J. B. (2003). What adolescents learn in organized youth activities: A survey of self-reported developmental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25-55. <https://doi.org/10.1111/1532-7795.1301006>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ivity, adaptability, and adapt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1-10.
- Hirschi, A., & Valero, D. (2015). Career adaptability profi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aptivity and adapt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220-229.
- İspir, Ö., Elibol, E., & Sönmez, B. (2019).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raits and entrepreneurship tendencies with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79, 41-47.
- Larson, R. W., Hansen, D. M., & Moneta, G. (2006). Differing profiles of developmental experiences across types of organized youth activ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849-863.
- Laursen, B. P., & Hoff, E. (2006).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52(3), 377-389.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Mahoney, J. L., Larson, R. W., Eccles, J. S., & Lord, H. (2005). Organized activities as developmental contex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J. L. Mahoney, R. W. Larson, & J. S. Eccles (Eds.), *Organized activities as contexts of developm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fter-school and community programs*(pp. 3-22).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orin, A. J., Morizot, J., Boudrias, J. S., & Madore, I. (2011). A multifoci person-centered perspective on workplace affective commitment: A latent profile/factor mixture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4(1), 58-90.
- Negru-Subtirica, O., Pop, E. I., & Crocetti, E.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reciprocal associations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vocational identi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131-142.
- Nylund-Gibson, K., Garber, A. C., Carter, D. B., Chan, M., Arch, D. A., Simon, O., Whaling, K., Tucker, S. R., & Lawrie, S. I. (2023).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transition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28(2), 284-300.
- Nylund-Gibson, K., Grimm, R., Quirk, M., & Furlong, M.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 Parmentier, M., Pirsoul, T., & Nils, F. (2022). Career adaptability profiles and their relations with emotional and decision-making correlates among Belgia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9(4), 934-950.



- Rogers, M. E., & Creed, P. A. (2011).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using a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framework. *Journal of Adolescence*, 34(1), 163-172.
- Rogers, M. E., Creed, P. A., & Glendon,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 Runco, M. A., & Jaeger, G. J. (2012). The standard definition of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4(1), 92-96.
- Savickas, M. L. (2005).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Dispositions, concerns, and narratives. In *Contemporary models in vocational psychology*(pp. 303-328). Routledge.
-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2nd ed., pp. 147-183). Wiley.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61-673. <https://doi.org/10.1016/j.jvb.2012.01.011>
- Schoon, I., & Silbereisen, R. K. (Eds.). (2009).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Global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patterns of divers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667-692.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9). The concept of creativity: Prospects and paradigms.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pp. 3-1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28-3](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28-3)
- Super, D. E., Crites, J. O., Hummel, R. C., Moser, H. P., Overstreet, P. L., & Warnath, C. F. (1957). *Vocational development: A framework for research*. Teachers College Press.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Wang, N., Yan, Z., Cheng, D., Ma, X., & Wang, W. (2024). Career adapt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A person-centered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3(3), 718-731.

〈Abstract〉

---

## The Roles of Creative Personality and Career Activities in the Latent Transition of Career Adaptability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

Kim, Yun-Kyoung<sup>1</sup>

This study examined latent profiles of career adaptability and their transitions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creative personality and high-school career activity experiences predicted late-adolescent profile membership and subsequent transitions. Data were drawn from Waves 5 and 7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middle-school cohort. The latent transition analysis included 2,325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career adaptability indicators in at least one wave, while predictor analyses included 2,252 participants with complete predictor data. Four latent profiles were identified in late adolescence: moderate, low-curiosity, low-confidence, and high. Four profiles were also identified in early adulthood: low-curiosity, high, moderate, and low. Most individuals in the late-adolescent moderate profile remained in the moderate profile, although some transitioned to the low profile. Those in the high profile were most likely to remain high but also transitioned to the moderate or low profiles. Members of the low-curiosity and low-confidence profiles were most likely to transition to the moderate profile. Creative personality, experience/practice-based career activities, club activities, and creative/exploratory activities positively predicted membership in the late-adolescent high profile. Experience/practice-based career activities and club activities also predicted membership in the low-curiosity profile, while creative personality and these two activity types predicted membership in the low-confidence profile. Club and creative/exploratory activities were associ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transitioning from the moderate to the low profile. However, among individuals in the low-confidence profile, some career activity experiences were associated with a greater likelihood of transitioning to the low rather than the moderate profile.

**Keywords** : career adaptability, latent transition analysis, creative personality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5S1A5B5A16006553)

1. Senio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crosstheuniverse222@gmail.com](mailto:acrosstheuniverse222@gmail.com)  
(Lead Author)